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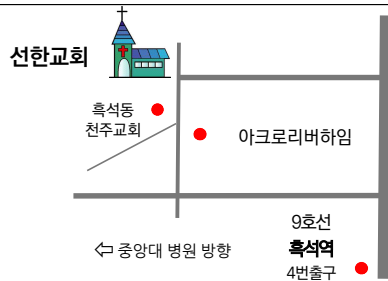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 20:1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8장	
	교	독	교독문 9번 (시편 15편)	
	찬 양 과 경 배		419장 (통일찬송가 478장)	
	말	씀	요한계시록 2장 12 ~ 17절	
	설	교	버가모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특	송	이하은 형제 '시편 23편'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선택의 문제 (롬9:9-24)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40주년 창립주일	오늘은 선한교회 창립40주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 예배 안내		1. 기간: 2월23(주일)~3월31일(화) 2.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가정 영상예배) ※ 홈페이지와 교회공지방 링크 3.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드림				
3. 기타안내		1.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금주범위: 에스더~아가]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5.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인내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	--

가정예배	거룩한 사람의 거룩한 열매
찬송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통 434장)	
본문 : 마태복음 7장 15~23절	
말씀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오늘 본문21절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명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유용한 판단 도구로 여기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도구가 되진 못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마치 옆집의 부자 아저씨가 사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너무 부러워서 나 혼자 부자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열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제자에게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열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심히 성실히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노력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이런 식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유전자에서 결정됩니다. 즉 우리의 존재(Being)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행동(Doing)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동과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존재가 바뀐 이후에 성숙의 과정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도 그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니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성찰하며 따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열매가 맺히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버가모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2:12-17)
서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고 소아시아 7교회(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론	1. 버가모교회의 상태 (1)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12절) (2) 주님의 칭찬: ①‘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13절) ②‘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13절) (3) 주님의 책망: ①‘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14절) ②‘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15절) (3) 주님의 권면: ①‘회개하라’ ②‘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16절) (4) 주님의 약속: ①‘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17절) ②‘(새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줄터인데’(17절)
	2. 교훈 (1)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자. (2)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자. (3) 천국잔치에 참여할때까지 영적성결을 지키자.
결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날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정치적 왕국이 아닌 진리 왕국의 왕	날짜 : 3월 16일
찬양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본문	요한복음 20:24-31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하였지만, 자명하게 십자가에 못박혀 돌 무덤에 묻힌 죽은 이가 눈 앞에 나타났다는 동료들의 말을 도마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죽은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인간이 보고 생각하는 인식체계를 넘어서는 신비이기에 도마가 아닌 누구라도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났고, 그날도 제자들은 문을 닫고 모여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의 말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경험과 지식으로 굳게 닫은 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 부활의 신비를 묵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과 삶에 두려움으로 문을 굳게 닫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3.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맥락’ 안에서 나의 두려움과 기쁨, 삶의 방향과 목적을 되돌아봅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도마가 믿는자가 된 것처럼 부활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신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성경공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찬양과 기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 305/통 405)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은 배가 너무 고파 빵을 훔치는 작은 범죄를 저질러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위험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석방됩니다.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 세상에서 박해와 냉대를 받은 그는 디뉴에서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미리엘 주교가 그를 식탁에 앉혔을 때 장 발장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때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이름을 묻지 않고 다만 괴로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 뿐이요.” 이렇듯 주교는 장 발장을 “내 형제”라 부르며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고 사제관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장 발장은 주교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여섯 벌의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감에게 붙잡혀 끌려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는 “나는 당신에게 은촛대도 주었는데 왜 당신에게 준 그릇이랑 함께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장 발장을 변호해 줍니다. 주교의 친절과 자비를 경험한 장 발장은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그는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른 후 한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되어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다시 감옥에 가야 할 결정적 순간에 경험한 무조건적 용서와 자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백한 실수를 했음에도 정죄당하지 않고 무조건적 용서를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말씀 나누기	요한복음 21:1~14	
묵상포인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 이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제자라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나 허물도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한 그 자리가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제자들이 말씀을 따르자 어떻게 되었나요?(5~6절)	
적용하기	내 힘으로는 아무 성과를 못 내다가 주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 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제 과거의 실패와 상함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명을 감당해 열매 맺는 제자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날짜 : 3월 20일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학개 2:1-9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때 백성 중에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는데, 많은 학자는 이때 이들의 울음이 감격으로 인한 울음이라기보다 그 성전 기초가 너무 불품이 없어서 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외형이 초라함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격려는 첫째 이 집트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이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빌론에 포로로 끌여가기 전이나 포로 생활을 하던 때나 또 포로에서 풀려난 후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망하게 함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격려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전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솔로몬 때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무너진 우리 내면의 성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재건되기를 주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응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언약에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끝까지 믿고,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재건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3절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2.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겉모습의 화려함에 이끌려 본질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아파하는 양심과 눈물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무너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잘 재건해 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무너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날짜 : 3월 17일
찬양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	본문 요한복음 21:1-14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이고,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멋지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을 오르고, 주님과 함께 물 위도 걷고,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실패자가 되곤 합니다. 갈망했던 꿈이 처절하게 깨져 버리고 자신의 무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나라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늘 무기력하게 패배만 하는 것 같아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쥐구멍 같은 좁은 곳으로 숨어들어가고 싶을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무력함과 무능함, 아무 대책 없고,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때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끝이고 막다른 골목이요, 가장 낮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감이 온 영혼을 짓누르는 바로 그 때에 일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실패는 결코 실패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의 사건(눅 5:1-11)을 찾아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건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일을 간략하게 기록해봅시다. 2. 숯불은 베드로의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사건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일을 간략하게 기록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주님, 꿈은 좌절되고 실패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첫 사랑은 식고 의기소침해지며, 더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무익한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만 되풀이하는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한결같이 찾아와 곁에 계셔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더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소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첫사랑의 회복	날짜 : 3월 18일
찬양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25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베라 호숫가에서 주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아침식사를 드시고 난 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며 세 차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배반했던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께 인간적인 우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대답합니다. 어린 양이든 성장한 양이든 주님께서는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절망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에게 세 차례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양 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들으며, 또한 주님께 답변을 드리며 베드로는 점점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갔고, 더 친밀하게 주님을 경험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고 또렷하게 알아차렸습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실패한 내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2.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왜 근심하며 답했겠습니까? 3. 내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타인의 일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에서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삶의 우선순위	날짜 : 3월 19일
찬양	찬송가 183장 빈들에 마른 풀같이		
본문	학개 1:1-15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삶,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씨앗을 많이 뿌렸음에도 거두는 것은 적었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고, 옷을 껴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봉급을 모았는데도,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전 건축을 한 이후의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그것을 위해서 바빌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은 물론 대제사장까지 듣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유다 백성들은 많이 뿌려도 적게 수확했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많이 마셔도 갈증이 있었고, 옷을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열심히 벌어들여 모아도 저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2.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인생살이의 우선순위를 바꾸므로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바꾸어야 할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3.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로부터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믿음을 주시고, 바르지 못한 순위를 다시 바르게 바꾸어 놓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는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